

‘딥 체인지’ 해법 찾아... 머리 맞댄 300명의 행복날개 리더

SK ‘2019 이천포럼’ 개막

임직원·초청인사 300여명 참석
ES·DT 등 주제 26개 세션 마련

첨단기술·비즈니스 방법론 활용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등 논의



SK그룹은 3번째 이천 포럼을 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최태원 SK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개막식에서 기조 세션을 듣고 있다. /SK

올해에는 22일까지 워커힌 호텔과 이천 SKMS 연구소를 오가며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비즈니스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딥 체인지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솔루션(ES)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등을 주제로 26개 세션이 마련됐다. ES와 DT, AI가 실제 사업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점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SK관계자는 “ES, DT, AI 등은 재무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실천 도구들로, 이를 활용해 고객의 가치를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날 개막식과 기조세션에선 최태원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사 경영진과 임직원, 외부 초청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개막사에서 “올해 이천포럼은 SK가 고민해온 변화의 노력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에 초점을 맞춰 아젠다를 선정했다”며 “이 아젠다들은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하는 방향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조세션에서는 미국 보스턴대 마셜 엘스타인 교수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데이비드 달러 수석연구원 등이 강연을 펼쳤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도 포럼 첫날과 둘째날 SK와 공동 세미나 및 세션을 맡는다. 국자위는 SK와 함께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젝트를 연구중이다. LH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공기업들도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20일에는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화상을 통해 연합세션에 참여한다. 에너지 산업에 닥친 변화의 물결을 환경 관점에서 조망해본다.

이더리움 공동창립자인 조셉 루빈도 블록체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분석해주기로 했다.

셋째날에는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리

스크를 논의한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교통상부장관, 최석영 전 제네바 주재 대사 등 외교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오후에는 AI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 창출과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맥킨지 코리아 강혜진 파트너와 고순동 MS코리아 사장이 연단에 선다.

마지막으로는 SK구성원의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SK경영경제연구소가 ‘딥체인지에 필요한 역량,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라는 아젠다로 자리를 이끌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 클로징 스피치를 맡아 올해 이천 포럼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향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SK 구성원들이 글로벌 기술혁신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딥 체인지의 구체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S산전-한국전력연구원, 세계 최고 직류배전 기술 입증

서거차도 ‘직류 에너지 자립섬’ 탈바꿈

저압 직류배전망 구축 완료
신재생 에너지 전원 통해
에너지 효율 10% 이상 제고



LS산전은 진도군 서거차도에 세계 최대 직류 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했다. /LS산전

LS산전이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를 세계 최대 직류(DC) 섬으로 탈바꿈시킨다.

LS산전은 최근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및 진도군과 ‘서거차도 저압 직류배전망 구축 및 운영 실증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LS산전과 한전 전력연구원은 서거차도에 디젤발전기 대신 200kW급 태양광과 100kW급 풍력발전, 1.5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구축했다. 또 직류배전망과 에너지통합운영시스템, LED 가로등과 전기카드 및 직류디지털 가전 등 직류 생태계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10% 이상 제고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6월 서거차도 등 도서지역 전력난을 해소하고, 직류 배전 관련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류는 교류에 비해 안정적이고 전

력 손실이 적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앞서 변압난이도가 높아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전력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세로 자리잡는 상황이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공장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LS산전은 이번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앞서 높은 직류배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빌딩에 직류 전력을 공급하는 ‘1.5MW급 직류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류 전용 스마트 전력기기 등 관련 사업 역량을 토대로 유럽과 중국, 동남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글로벌 직류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실증 사업이 한전의 직류 배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 했다”라며 “직류 생태계 확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 관계자는 “선제적인 투자로 직류 전용 기기부터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4차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으로 확대되는 직류 시장에서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 ‘더 프레임’, 독립예술가 생태계 지원

美 민티드와 ‘혁신 협업’ 계약
21명 작 23점 소개, 판매 도와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신진 예술가에 작품 판매를 지원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민티드와 ‘혁신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민티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온라인 장터 업체다. 2007년 창업해 클라우드 소싱으로 문구를 판매하면서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 예술 작품과 인테리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삼성전자는 협업을 통해 더 프레임 아트스토어에 독립예술가 21명의 작품 23점을 소개하기로 했다. 개별작품은 19.99달러에 판매하고, 한달에 4.99달러를 내면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클라우드 소싱도 도입된다. 예술가가 작품을 제출하면 민티드 사이트에



삼성전자가 ‘CES 2019’에서 공개한 ‘더 프레임’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그림·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아트 모드’를 통해 보여줘 일상 공간을 갤러리처럼 만들어 주는 제품이다. /삼성전자

서 소비자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회사측 심사를 거쳐 판매 작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티드는 더 프레임과 협업을 통해 독립예술가 생태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SKT, 전국 돌며 ‘블루 노트’ 체험기회

SKT 노트10 체험 트레일러 출정식
점프 VR 등 5GX 서비스 홍보나서

SK텔레콤이 전국을 돌며 ‘블루 노트’ 알리기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SKT 노트10 체험 트레일러’ 출정식을 열고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트레일러는 5GX 클러스터가 있는 광주와 대전, 부산과 대구 및 인천 등 주요 도시를 돌며 갤럭시 노트10 블루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트10 ‘에어액션’을 활용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 기능과 ‘점프 VR’, ‘점프 AR’, ‘롤 멀리



SK텔레콤은 갤럭시 노트10 체험 트레일러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한다. /SK텔레콤

뷰’ 등 SKT만의 5GX 서비스 및 이벤트를 소개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10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LG U+ ‘U+프로야구’서 MLB 생중계

MBC 스포츠플러스와 제휴
韓메이저리거 출전 중심 중계

LG유플러스가 미국 메이저리거(MLB) 경기도 실시간 중계한다.

LG유플러스는 MBC 스포츠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20일부터 ‘U+ 프로야구’에서 MLB 중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 19일 밝혔다.

출전하는 경기를 중심으로 하루에 최대 3개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MLB관에서는 한국 메이저리거가 출전하는 경기 일정과 대진표를 소개하고, 지난 경기 하이라이트도 볼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는 MLB관 오픈을 기념해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다음달 20일까지 MLB를 시청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



LG유플러스는 U+ 프로야구를 통해 미국 메이저리거 실시간 중계를 시작한다. /LG유플러스

드와 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김재용 기자